

중국지역

■ 중국의 긴축정책과 동북3성 개발정책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중앙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위해 건설, 시멘트, 부동산, 철강 등 과열 업종에 대해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동북3성은 노후공업기지 개발정책에 힘입어 투자 확대를 통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 금년 5월 중국의 총통화(M2)가 17.5% 증가한 23조4천8백억위안에 머물러 최근 18개월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중앙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중국 정부가 경기 연착륙을 자신하며 긴축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단계 성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자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동북3성 정책 및 업계 반응]

□ 동북3성 정부의 정책

- 다롄시 소재 8만여개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다롄시 정부는 국가개발은행과의 협력 하에 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정책을 적극 실시중임. 다롄시 중소기업연합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출 신청을 하면 시정부는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RMB 2억위안을 편성함. 대출기한은 3년 이하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 최장 5년까지도 가능하며, 시정부는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이자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줌.
- 국가개발은행은 6월 3일, 랴오닝성에 1백억위안을 대출기로 결정하여 교통, 전력, 수리, 석탄 채굴,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다롄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132억9천만위안을 지원 받아 건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중국내 개발구 및 보세구에 대해서도 자격에 미달하거나 무자격 개발구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연기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반해, 다롄에서는 바다를 매꾸어 5km² 규모의 보세구를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랴오닝성 정부는 다롄, 선양, 안산, 잉커우 등 도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인데, 발전기금 및 재정 지원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임. 지린성과 헤이룽장성도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 담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2003년 헤이룽장성의 상업은행은 4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5백억위안의 유통자금을 지원한 바 있는데, 올해에도 지원폭을 늘려갈 방침임.

□ 동북3성 업계의 반응

- 건자재 업체인 H사에 따르면 동북3성은 노후공업기지 진흥정책에 힘입어 건축정책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정책의 주요 타겟 기업은 상하이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힘. 당장은 동북3성에서의 건축 규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기타 지역에서의 건축 규제로 인해 조만간 영향을 다소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난립해 있는 건자재 업체 가운데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동사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납기를 보다 정확히 준수하고 A/S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건축정책보다는 현지 업계와의 경쟁이 보다 큰 관심사인 것으로 언급함.
- 동북3성 은행업계는 남동부 연안이나 베이징에 비해 부동산 투자가 과열 수준에 달하지 않아 기존의 주택 대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다렌의 일부 상업은행은 오히려 주택 구매 대출액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월 25일부터 외자은행과 외자업체 전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총액(投資總額)에서 등록자본금(注冊資本)을 제한 차액 규모에 대해서만 외화 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인터넷에 게재함. 아직 정식 공문을 통해 은행업계에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조치로 인해 투자업체들의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 우리 업계 진출 전략

- 동북3성 개발정책은 중앙정부의 건축정책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관련 규정과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

(문의처 : 다렌무역관 허성무 goo2cu@kotra.or.kr)